

가두리양식장 그늘막 설치 적조 피해 막는다

여수시, 전국 첫 추진...햇빛 차단 적조 예방효과 기대

‘황토 살포 금지’ 논란 속 시설 보급 등 적극 지원키로

적조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가 전국 최초로 가두리양식장 그늘막을 설치하기로 했다. 최근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황토 살포 금지’ 조치와 그로 인한 해양수산부와 의 갈등 등으로 적조 확산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안이 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수시는 7일 “6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국·소·단장과 읍·면·동장 간부회의에서 적조예방 대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지역 가두리 양식장에 2미터 높이의 그늘막 등의 시설보급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했다.

그늘막 설치의 삼산면 초도 출신인 김충석 여수시장이 선조 때부터 오랜 세월 수산업을 경영해온 경험에서 제시한 아이디어로, 그늘이 지는 직박이 있는 정취망이나 이각망 여장에 어류가 많이 모이는 현상이 착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늘막 설치를 통해 뜨거운 햇빛을 차단함으로써 바다 수온을 떨어뜨리는 방식이다.

한 여름철에는 양식장 어류들의 먹이활동이 둔해지고 햇빛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성장이 더디지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그늘막 설치로 이 같은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그늘막과 지주용 대나무는 시에서 지원하고 어업인

들이 설치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우선적으로 시범설치를 통해 효과를 확인한 뒤 전면 보급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엄청난 규모의 적조가 남해안 전역을 덮친 지난 2009년 당시 전남 지역 최초로 적조 발생 직전 양식어류를 방류해 적조피해를 예방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수산업계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인공위성 직접 만들고 달 사진 촬영 체험행사

고흥서 청소년 '캔위성 개발 경연대회'

나로호 발사 성공과 함께 우리나라 우주항공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방학을 이용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공위성 직접 제작 경연대회나 견우·직녀성 관측 및 달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놔 인기를 끌고 있다.

고흥군은 7일 “초·중·고 및 대학생들이 인공위성을 직접 제작해보는 경험을 통해 우주개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증진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추진한 ‘2013 캔위성 제작·경연대회’의 본선대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오는 8일과 9일 이틀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KAIST 인공위성 연구센터에서 주관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후원하며, 고흥 항공센터에서 개최된다. 지난 4월9일부터 약 1개월간 진행된 참가팀 모집 결과 전국에서 초·중등부 42팀, 고교부 55팀, 대학

부 19팀이 참가신청을 한 바 있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본선에 진출할 고교부 10팀, 대학부 10팀은 팀별로 캔위성을 직접 기획·개발해 대회 기간 경연을 펼치게 된다.

고교부 및 대학부 참가팀들은 경연대회 본선과 16일로 예정된 위성개발·운영 성과에 대한 최종결과발표회를 통해 기술력, 임무수행능력 등을 평가받게 되며, 평가결과에 따라 상장, 상금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또 군은 오는 13일 칠월칠석을 맞아 고흥우주천문과학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여름 밤 하늘 아래 펼쳐지는 은하수 및 견우·직녀성 관측, 달 사진 촬영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참가 어린이에게는 별자리 책자, 행사자 등 기념품도 제공한다.

/고흥=주국경기자 gjju@

견우직녀 사랑축제

오는 13일 구례 화엄사 주자장

‘2013 견우직녀 사랑축제’가 오는 13일 전남 구례에서 열린다.

7일 구례군에 따르면 칠월칠석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1년에 한 번씩 만나 애틋한 사랑을 나누는다는 옛 설화를 바탕으로 한 견우직녀 사랑축제를 13일 구례 화엄사 장터에서 연다.

축제는 편지 사연을 시화로 표현한 사랑의 편지 시화전, 전라남도 사랑의 날 선포, 견우직녀의 사랑이야기를 재구성한 창무악 공연,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견우직녀 선발, 전남산녀 인연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강성, 박강수, 추가열, 이승훈, 양하영 등 11명의 초청 가수 공연도 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여수시 시도대항 탁구대회

제29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탁구대회가 오는 10일까지 여수시 일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대회에 참가한 시·도 대표 선수단이 치열한 경기를 펼치고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kwangju.co.kr

광양 도심 불법주차 집중 단속

시,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설치도

광양시는 7일 “원활한 교통흐름과 쾌적하고 질서 있는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 신축, 도로신설 노상·노외주차장 유료화 등 주차환경 변화로 도심시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의 양면 불법주차로 교통정체 현상이

유발됨에 따라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확대 지정된 구간은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광양읍 구 경찰서 유료주차장 주변 GS 25시~모은정 식당, 인동로터리 주변 서울해장국~종미치킨, 풍미치킨 맞은편~남양읍 기촌 맞은편, 청산고깃간 맞은편~황금삼학 맞은편 등이다. 또 중마동 송

보5차아파트 한마을회관~봉달이영 풀길밭, 호반아파트 뒤 우리타갈비~송월타갈비 등 6개 구간 1.46km이다.

이에 따라 시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따른 혼란과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차라인 도색, 프래카드 등을 통해 홍보한 뒤 이달 중순부터 집중 단속 및 민원할 예정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시, 유기농 자재만들기 그룹 컨설팅

광양시는 7일 “강소농의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마인드 실천을 위해 6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80명을 대상으로 유기농업자재만들기 그룹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유기농업에 관심이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주변 산야에 널려있는 자연자재를 이용하는 실습교육으로 추진됐다.

특히 저비용고효율 친환경기능성 과수재배 기술과 유기농업자재 자가

제조 활용요령 등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진행돼 호평을 받았다.

그동안 시는 농업·농촌·농업인을 아우르는 ‘3농정책’을 추진하면서 저비용·유기농 조기 정착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된 미생물매양실을 통해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고추균, 유산균, 광합성균 등을 생산해 작물별 영농 시기에 맞춰 공급해 오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전북



군산서 공룡발자국 화석 100개 발견

중생대 백악기 추정

산북동 도로공사 현장

군산시의 한 공사현장에서 초식공룡의 발자국 화석 100여개가 발견돼 문화재청이 조사중이다. <사진>

문화재청은 7일 “군산시 산북동 도로 공사현장에서 중생대 백악기(1억 3500만년~6500만년 전) 것으로 추

정되는 공룡 발자국 화석 100여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군산지역 지질조사를 하던 지질자원연구원 연구진의 계보를 받고 현장을 조사한 문화재청은 공룡 발자국 화석이 확실하며 4개의 보행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현장에는 불규칙한 공룡 발자국 100여개가 선명하게 보존돼 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순창 셋째아 이상 학습비 등 지원

군, 출산장려정책 확대...다자녀 가구 주택자금 3000만원도

순창군이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출산장려금과 양육지원금을 비롯해 임신부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를 펼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조례개정을 통해 셋째아 이상의 다자녀 학생에게도 학습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군은 출산장려금과 양육지원금으로 3억5800만원을 투입해 부모모두 순창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할 때 첫째아·둘째아에게는 50만원의 축하금과 60만원의 양육비를, 셋째아 이상에게는 300만원의 축하금과

18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특히 이달부터는 여섯째 이상을 출산하면 주택자금으로 3000만원을 지원하는 특례도 있다.

또 임신부에게는 철분제와 엽산제를 지원하고, 월 평균소득 50% 이하인 가정에는 1767만원의 예산을 투입, 2주에서부터 4주간의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임신이 어려운 부부의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해 온

학습활동비를 올 7월부터는 셋째아 이상 다자녀 학생에게도 확대 지원하고 있다.

올해만 330명의 신청자 중에서 과반수를 넘는 175명의 다자녀학생이 신청했다.

올 7월부터 지원하는 다자녀학습활동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순창군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셋째아 이상으로 보호자와 학생이 함께 군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군에서 60%, 학원에서 10% 등 70%를 지원하고, 자부담은 30%만 내면 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정읍시-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업무협약

‘조곤 집 고치기’ 5000만원 모금 활동

정읍시가 아동복지지원전문기관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한 아동 돕기를 위해 5000만원 모금 활동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달 비닐하우스 내에 임시적으로 얇은 합판을 덧대 만든 2평 남짓한 공간에서 변변한 수도시설이나 화장실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다섯 식구가 생활하고 있는 조곤 가정을 발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연계로 진행하고 있다.

김생기 시장은 이와 관련 지난 6일 조곤 가정을 방문해 위로 격려하기도 했다. 시는 조곤 가정에 대해 주거지원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먼저 시 희망복지지원단은 직접 조곤의 가정을 찾아 세탁기 등

생활용품도 지원하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조곤 가정의 주거개축 비용 5000만원 모금을 목표로 캠페인을 나서기로 했다.

후원은 농협 105739-64-771061(예금주 어린이재단)으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063-539-5484로 하면 된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찾아가는 청자박물관’

부안군, 오늘부터 운영

대명리조트 변산지점

부안청자박물관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8일부터 27일까지 ‘찾아가는 청자박물관’을 대명리조트 변산지점에서 운영한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간과 교통 문제로 박물관 방문이 어려운 관광객들을 위한 것으로, 이번 행사에서는 도자기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특히 관광객들이 직접 자기만의 도자기를 만들어 그림이나 문양을 새겨 넣어 굽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또 전시를 통해 박물관 측은 그동안 발표된 새로운 작품과 박물관에서 자체 제작한 다양한 도예작품을 선보이게 된다.

/부안=정재용기자 jyj0681@

단신

정읍 강소농 30명 대상 후속교육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7일 “지난 3월과 7월 강소농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마친 데 이어 이달부터 11월까지 총 5회에 걸쳐 후속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기술센터는 이날 정읍 강소농 30여 명을 대상으로 제2청사 대강당에서 1차 후속교육을 가졌다.

강소농 후속교육을 통해 참여 농가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자신의 농업경영 현황을 살펴보고 경영비전과 목표를 설정한 뒤 이를 근거로 경영계획서와 시기별 실행보고서를 작성한 후 15일 간격으로 이를 점검하는 등 컨설팅을 받게 된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남원, 유도꿈나무 300여명 하계합동훈련

남원시는 7일 “대한체육회 주관 대한유도회 소속 꿈나무유도선수단 대표팀 32명, 합동훈련 25개팀 300여명이 4일부터 18일까지 15일동안 춘향체육관에서 하계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2013 꿈나무 유도선수단은 남

원에 체류하면서 합동훈련은 물론, 광한루원과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예정이다. 남원시는 대한유도회 꿈나무 유도선수가 머무는 전지훈련 기간동안 체육시설 제공과 숙박·식당·쇼핑 등의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전주, 오는 10일 전국 게이트볼대회

전주시는 7일 “오는 10일 전주시게이트볼전용구장에서 17개 시·도 64개팀 600여명이 참여하는 ‘2013년 국민생활체육 전국3세대 게이트볼대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국민생활체육 전국게이트볼연합회와 전주시게이트볼연합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조부모, 부모, 손자가 함께 하는 3세대 대회로

어르신들의 사회적 소외감을 극복하고, 세대 간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시는 게이트볼의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송전동에 현대식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갖추고 동호인들의 정기적인 대회는 물론, 전국 단위의 대회도 잇따라 유치하고 있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 운봉예향회 ‘황산대첩 재연행사’

남원시 운봉예향회는 7일 “공복 절인 15일 주민 등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선인들의 용맹과 충절을 기리기 위한 황산대첩 재연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재연에는 마상무예, 지표면 새로운 작품과 박물관에서 자체 제작한 다양한 도예작품을 선보이게 된다.

왜구의 투구를 벗겼던 신공의 모습도 재연된다. 재연행사에는 한국 마상 무예훈련원 단원, 전주시청 승마동호회, 주민 등 80여명이 출연한다.

황산대첩은 1380년 우왕 6년 지리산 운봉면 황산 일대에서 이성계 장군이 왜구를 크게 물리친 전투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